

5분 자유발언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7. 9. 15.(금) 10:00

농·축산업 환경 개선 및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의원

농·축산업 환경 개선 및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장군면 출신 이충열 의원입니다.

○ 먼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44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조례심사, 현장방문 등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또한, 몇일 후면 10여일에 걸친 추석명절의

‘황금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김영란 법 시행과 해외 여행객 급증으로 인해 농산물 소비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이 앞서지만, 아무쪼록 풍요
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현재 농촌은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와

고령화·농업인구 감소, 쌀 소비위축 및 가축질병,
기후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 우리 시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농업환경 변화로
농업인들의 고민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깨끗한 농·축산업 환경 조성을 통해 청정 농·축산물
생산의 이미지 전환과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과 행복 바우처 사업”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 먼저,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서유럽은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농촌 어메니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농촌 어메니티”란,
농촌 특유의 전원 풍경, 전통문화 등 고유의
특색을 활용하여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농촌다움”이라는 말로 바꾸어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특히, 인근 충남도 에서는 충남 형 농촌 어메니티
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환경 프로그램」을
마을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은 읍면과 마을 간 협약에 의해
주민들이 마을단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고 협약한 사항을 이행하면
이행조치 확인 후 4,320개 농가를 대상으로
연 48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는 마을단위의 자율적 추진으로 인한
공동체 회복 및 주민 스스로 실천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자발적 친환경 보전 의욕을 고취 시키며,
우수한 사례를 수집하여 농·축산업 환경 개선을
모델화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 또한 「농업환경 프로그램」 이외에도
농장 주변에 조경수 식재 및 꽃밭·정원을 조성하여
주위 환경을 공원처럼 깨끗하게 가꾸는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을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을 시행 한다면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혐오감 해결은 물론, 농촌을 다시 찾고 싶은 휴식 및 체험 공
간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다음으로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12년 충청북도를 시작으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8개 시·도에서 여성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해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들이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병원이나 약국, 체력단련, 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여성 농업인들이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는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농·축산업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사업과,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을 추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 9.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이충열